

한국 건강심리학 연구주제의 흐름: 2002-2021[†]

한 규 만

최 지 명

이 민 규[‡]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박사수료

교수

본 연구는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한국 건강심리학의 연구주제의 흐름을 확인하여, 건강심리학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논문 994편의 논문 제목에서 추출된 1207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빈도수가 높은 주제어를 추출하고, 주제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주요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 변인 간의 관계 및 확인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주요 주제어는 정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연구들은 주요 주제어인 정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건강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연구동향, 데이터마이닝, 의미 네트워크 분석

[†]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BK21사업에 의해 지원받았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5-751-5781, E-mail: rmk92@chol.com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은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건강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의식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인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는 건강심리학자의 역할에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1994년 한국심리학회(의 8번째 분과로 한국건강심리학회(Korean Health Psychology Association)가 설립되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건강심리학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초기 건강심리학에 대한 관점은 스트레스(stress)와 질병(illness) 그 자체에 대한 초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심지어 웰다잉(well-dying)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흐름은 건강에 대한 주요한 관점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초기 건강에 대한 관점은 생의학 모델(biomedical model)로 단순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정의하였으나(강신익, 2006; Lundström, 2008), 이후 건강에 대한 모델은 생물·심리·사회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모델은 건강에 대한 생물학, 의학적 관점과 함께 스트레스, 개인의 통제, 문화적 신념, 사회적 지원 등의 개인을 둘러싼 여러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는 건강이 질병이 없는 그 자체가 아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는 발전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Engel, 1977; Farre & Rapley, 2017).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도 정관을 통하여 건강에 대한 관점 변화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허약하지 않고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well-being)상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은 환자를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을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건강심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 국민의 건강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건강관리 인식조사 결과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89.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경승구, 장소현, 서남규, 문성웅, 오하린, 2019), 보건복지부(2021)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적으로도 건강에 대한 개념과 역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만성적 문제(금연, 음주, 영양 및 만성질환)를 포함한 개인의 건강과 안녕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개인의 건강 행동,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보건의료체계, 사회·물리적 환경 4가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건강에 대한 능동적 시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며(보건복지부, 2021), 이는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 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 심리학적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으로, 일차적 개입인 예방의 관점에서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 저해 행동을 수정하는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을 통하여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개인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개인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여러 장면에서 심리전문가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건강심리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지금 건강에 대한 관점, 접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는 등 더욱 다양해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새로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심리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기존 심리적 개입 방법과 다른 원격 심리치료 등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손해인, 2020; 이정화, 김희철, 2022; 최설, 2021). 즉, 사회 전반에 걸친 건강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일상(New-Normal)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의 건강심리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과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건강심리학회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건강심리학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로 2편이 있다. 서경현(2017)의 연구에서는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건강심리학자 및 건강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특징과 주제를 논문의 제목에 나타난 변인 명에 기초한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

시하였는데, 국내 건강심리학의 경우 중재 효과 검증 연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질적 연구 및 메타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웰빙, 우울 등의 변인을 사용한 논문이 다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논문들의 경우 신체적 건강과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심리학 영역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 대상의 연구, 건강행동실천 등의 연구로 확장을 시도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의 경우 논문의 제목만을 근거로 변인 명에 기초한 분류를 통하여 연구 동향을 탐색하여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 역시 제시하였다.

강혜자와 손정락(2018)의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학회의 역사와 발전, 회원들의 활동 영역, 학회지에 대한 검토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논문들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빈도를 확인하여, 창간호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건강관리 체계를 향상시키고 건강에 대한 공공오피니언을 조성하기 위해 심리학의 개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심리학은 공학과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의료 ICT,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새로운 도전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은 개별 키워드에 대한 빈도만을 근거로 하여 제시되었으며, 한국건강심리학회 전반에 대한 내용

을 다루고 있어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앞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학회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다만,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선행연구에서는 제목에 나타난 변인 명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거나, 논문에 제시된 키워드의 단순 빈도만을 근거로 하는 등의 제한점을 가진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제목의 변인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키워드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에서 해당 연구의 변인 명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의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현재 건강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출간되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학회지는 1996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 등재 학술지로 출간되었다. 구체적인 출간 일정은 1996년~1999년까지 11월 또는 12월에 1회씩 출간되었으며, 2000~2001년 사이에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출간되었다. 2002~2003년 사이에는 4월, 8월, 12월 3회에 걸쳐 출간되었으며 2004년부터 2019년까지 3월, 6월, 9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출간되었다. 지금 현재는 2020년부터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6회

에 걸쳐 출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의 발전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KCI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2002년 발간호인 제7권 1호부터 2021년 제26권 6호까지 게재된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확인하여 한국건강심리학회의 노력과 미래 건강심리학 분야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2년(제7권 제1호)부터 2021년(제26권 제6호)까지 총 20년에 걸쳐 발간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총 994편의 논문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수집 과정은 NetMiner 4.3Version에서 제공하는 BIBLIO Data Collector를 사용하여 한국연구재단 KCI(Korean Citation Index) 등재 후보 및 등재 후 출간된 논문 검색을 통하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수집하였다.

분석방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출간되었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편수 추이, 키워드 출현빈도를 산출하였다. 이후, 연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제어들의 중심성을 확인하여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수집 도구인 BIBLIO Data Collector를 통하여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년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제목을 수정 없이 수집하였으며, 이후 전처리 및 분석을 위하여 Social Network Analysis 도구인 NetMiner 4.3version(Cyram, 2017)을 활용하였다. 논문의 제목은 텍스트 마이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수문자 및 불필요한 정보는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불용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추출된 주제어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주제어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근접 중심성, 연결관계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하여 해당 주제어들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간략한 연구 진행의 절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절차

단계 1	데이터 수집	자료출처: KCI 수집유형: 논문(제목) 검색주제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언어: 한국어
단계 2	데이터 필터링 및 전처리	
단계 3	기초분석	연도별 논문 추이 주제어 빈도분석
단계 4	텍스트 마이닝	워드클라우드
단계 5	의미 네트워크 분석	근접 중심성, 연결관계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결 과

연도별 논문 추이

2002년 제7권 1호부터 2021년 제26호 6권까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논문의 연도별 논문 추이는 2002년과 2003년 학술지의 경우 연 3회 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년 게재되는 논문의 편수 빈도는 50~60개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 논문 추이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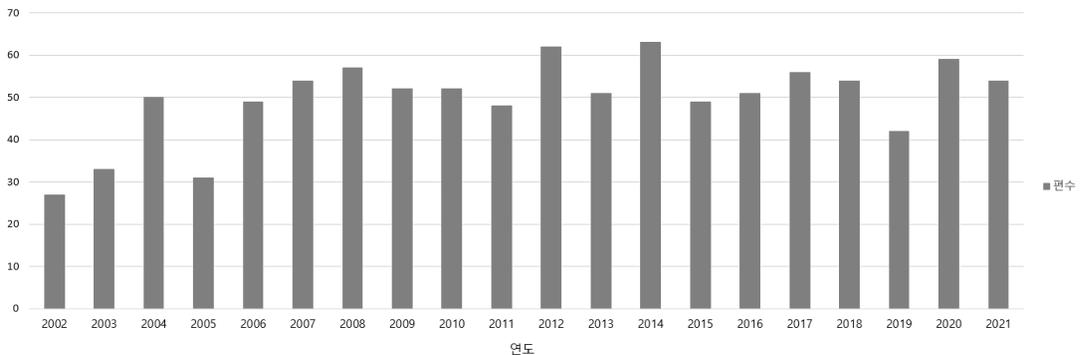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연도별 게재 논문 편수 추이

타난 주제어로는 ‘우울(94)’, ‘대학생(89)’, ‘척도(77)’, ‘불안(77)’, ‘건강(69)’, ‘치료(68)’, ‘중독(65)’ 등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전체 주제어의 출현빈도 및 워드클라우드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전체 994편의 연구에서 출현한 주제어 총 1,207개의 중심어 30회 이하로 출현한 단어들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정도가 약하고, 중심성 측면에서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된 후 50회 이상 출현한 25개의 중심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여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확인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주제 빈도수 23위인 ‘프로그램(0.833)’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빈도수 5위인 ‘정서(0.500)’로 나타났다. 또한, 빈도수 8

표 3.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주제어 중심성 지수

주제어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in-degree	out-degree	in-degree	out-degree	
관계	0.612	0.685	0.458	0.541	0.158
정서	0.612	0.558	0.500	0.333	0.074
우울	0.565	0.533	0.416	0.250	0.043
척도	0.565	0.338	0.416	0.083	0.046
중심	0.551	0.421	0.291	0.083	0.044
도박	0.537	0.421	0.291	0.208	0.037
행동	0.537	0.631	0.333	0.416	0.133
경험	0.524	0.489	0.250	0.250	0.050
신체	0.524	0.480	0.333	0.166	0.031
문제	0.512	0.500	0.291	0.208	0.021
인지	0.512	0.480	0.291	0.166	0.026
대처	0.500	0.510	0.250	0.250	0.031
스트레스	0.500	0.600	0.291	0.458	0.058
불안	0.479	0.545	0.208	0.291	0.040
마음	0.470	0.000	0.125	0.000	0.000
청소년	0.440	0.500	0.208	0.208	0.018
효과	0.440	0.461	0.166	0.125	0.055
요인	0.432	0.461	0.125	0.166	0.036
건강	0.423	0.521	0.125	0.208	0.009
대학생	0.423	0.533	0.166	0.291	0.025
개발	0.415	0.328	0.083	0.041	0.008
영향	0.408	0.571	0.125	0.375	0.017
치료	0.400	0.500	0.125	0.250	0.026
프로그램	0.400	0.500	0.833	0.250	0.031
중독	0.393	0.631	0.083	0.416	0.018

위인 ‘우울(0.416)’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심리학회에서 제시된 연구들은 ‘프로그램(0.833)’이라는 주제와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0.500)’, ‘우울(0.416)’ 역시 다른 주제들과 연결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가장 연결정도 중심성이 낮은 ‘중독(0.083)’의 경우 현재 제시된 다른 주제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연결 정도가 낮은 주제어로 제시될 수 있다.

매개 중심성 결과를 보면 빈도수 2위인 ‘관계(0.158)’가 가장 높은 주제어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빈도수 4위인 ‘행동(0.133)’이 나타났다. 이는 다른 주제어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한 주제어로 현재까지의 건강심리학 연구 과정에서 다른 주제어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주제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근접 중심성은 ‘관계(0.612)’, ‘정서(0.612)’가 가장 높은 주제어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주제어들과 가장 가깝고 많이 연결되어있다는 것으로 주요 현재까지의 건강심리학 연구는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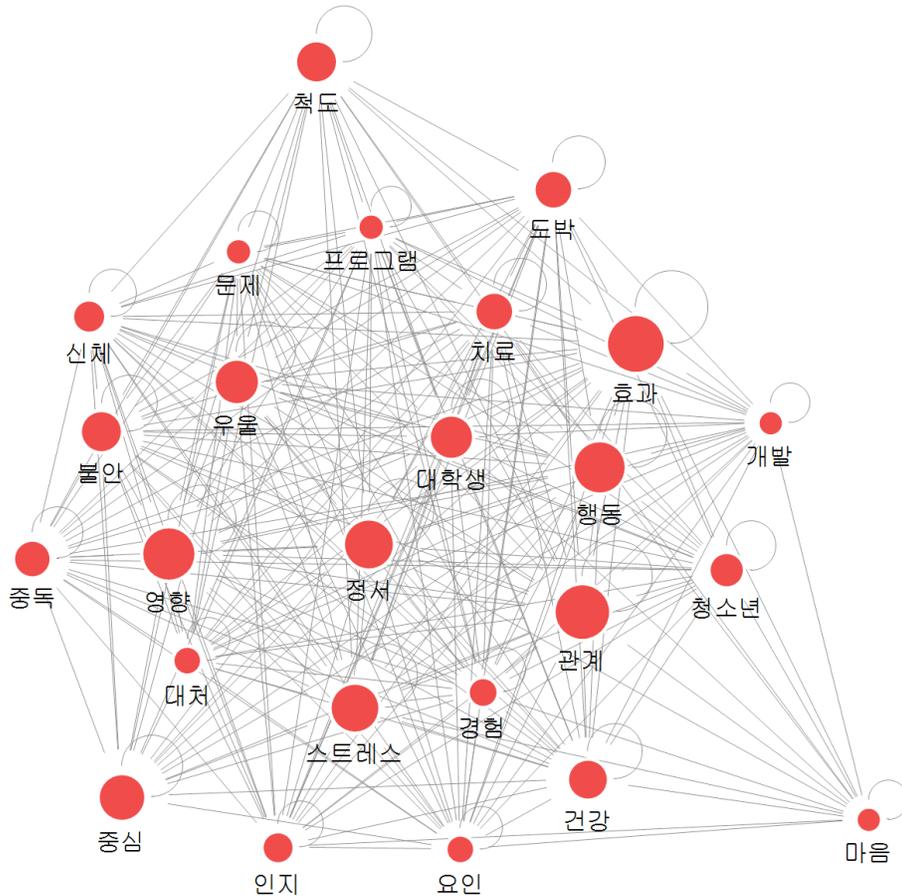


그림 3.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주제어 네트워크

연구와 정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가지의 중심성 지수를 모두 종합했을 때, 현재 가장 큰 중심성 지수를 가진 주제어는 ‘정서’로 볼 수 있다. 다른 주제어와 연결이 쉽고, 교량 역할을 하며, 가장 많은 초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게재된 연구의 경우 ‘정서’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실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제어의 중심성 분석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KCI 등재 후보지 선정 이후인 2002년 제7권 1호부터 2021년 제26권 6호까지 20년간 게재된 논문에서 도출한 주제어에 대한 빈도분석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한국건강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전체 주제어를 제시하고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지난 20년간 다루어진 주제어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주제어들이 다른 주제어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건강심리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지난 20년간의 연구들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주제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상위 주제어는 ‘효과(313)’, ‘관계(201)’, ‘영향(195)’, ‘행동(153)’, ‘정서(147)’, ‘스트레스(145)’ 등이다. 이는 국내 건강심리학 연구의 핵심은 치료의 효과, 변인 간의 관계 및 영향,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 방법과 행동, 정서,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의 영역에 많은 초점

을 두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중재 효과 및 정서와 관련된 연구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점이 정량적으로 검증되었다.

다만, 이전 연구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연구에서 ‘신체(60)’는 주요 주제어로 도출되었으며, 근접 중심성 및 연결 정도 중심성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체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다른 연구들과의 연관성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섭식, 음주, 압, 흡연 등 신체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는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건강심리학의 연구는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도출을 지속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초점을 둔 연구 진행을 통하여 연구 분야 확장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지난 20년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주제어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핵심 주제어는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은 ‘정서’로 확인되었다. 정서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국내 건강심리학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연구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지수와 함께 고려하면, 단순히 가장 많은 연구주제로 사용된 것이 아닌, 다른 연구주제들과 가장 많은 연결이 있었던 연구주제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정서’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로의 확장을 시

도해 왔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서 관리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정서’ 주제어가 높은 빈도수와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여러 변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건강심리학은 우울, 불안과 같은 변인을 포함하여 정서적 변인과 치료적 변인들에 초점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주제의 빈도만을 확인하였을 경우, 정신건강 측면과 신체 건강 측면 모두에 관련된 변인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연구의 주제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심성 지수를 토대로 하여 관계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모든 주제는 정서적 측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연결중심성 정도가 높은 ‘프로그램’과 함께 고려한다면, 치료적 개입 등과 관련된 주제로 실시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건강심리학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서 관련 변인 혹은 치료적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을 맞추어 예방적 활동인 건강 관련 습관 개선 등의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 관련된 건강 행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주제에 대한 도출 및 연구 진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현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외 건강심리학 연구 동향을 비교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Johnson과 Acabchuk(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 국외 건강심리학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어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스트레스, 심혈관 건강 등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 사망, 비만, 정신질환, 신체활동, 건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

인, 실업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동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방적 관점으로 그 시각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국외 건강심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은 실업,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건강심리학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의 경우 개인 내적 변인들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외에서는 개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라 연구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 건강심리학 역시, 개인 관련 변인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집단 등 다양한 연구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심리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건강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발전해온 국내 건강심리학 연구에 대한 체계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주제어들을 확인하고 그들 간의 관계 확인을 통하여 지난 20년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의 주요 연구 초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우리 한국건강심리학회 나아가 갈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연구결과들은 단순히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들만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연결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각을 견지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서는 새로운 대상자, 새로운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건강과 관련된 여러 장면에서 포괄적인 연구 진행 및 새로운 변인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주제어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지만, 주제어를 도출하는 절차의 차이, 상위 주제어 선정 등의 과정에서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주제어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표본 수집 단계에서 창간호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는 KCI 등재 전 자료로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체 20년의 자료를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여 명시적인 시기별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 및 한국건강심리학회와 주요 변화점 등의 시기를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신의 (2006). 질병·건강·치유의 역사와 철학. *의철학연구*, 1(1), 17-39.
- 강혜자, 손정탁 (2018). 한국의 건강심리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17.
- 경승구, 장소현, 서남규, 문성웅, 오하린 (2019).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서경현 (2017). 국내외 건강심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1-14.
- 손해인 (2020).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뉴욕주 정신건강 서비스의 변화: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 (Telemental Health) 전면적 실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여름), 71-86.
- 이정화, 김희철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기반 비대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촉진 방안 고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6(3), 463-468.
- 최철 (2021). 코로나 시대의 건강심리 서비스: 원격 심리치료의 효과와 이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1), 1-20.
- Cyram (2017). *NetMiner 4.3*. Seoul: Cyram Inc.
- Engel, G. L. (1977). The need for a new medical model: a challenge for biomedicine. *Science*, 196(4286), 129-136.
- Farre, A., & Rapley, T. (2017). The new old (and old new) medical model: four decades navigating the biomedical and psychosocial understandings of health and illness. *Healthcare*, 5(4), 88-96.
- Johnson, B. T., & Acabchuk, R. L. (2018). What are the keys to a longer, happier life? Answers from five decades of health psychology research. *Social Science & Medicine*, 196, 218-226.
- Lundström, L. G. (2008). Further arguments in support of a social humanistic perspective in physiotherapy versus the biomedical model. *Physiotherapy Theory and Practice*, 24(6), 393-396.

원고접수일: 2022년 10월 12일

논문심사일: 2022년 10월 19일

게재결정일: 2022년 11월 2일

Trends of Health Psychology Study in Korea: 2002–2021

KyuMan Han Jimyeong Choi MinKyu Rh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predict changes in health psychology and seek development directions by confirming the flow of research topics in Korean health psychology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this purpose, high-frequency keywords extracts from 1207 from the titles 994 papers titl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for 20 years from 2002 to 2021,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word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leading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nd confirmation between variables, many studies related to emotion and stress were confirmed to be the main keyword. Second, studies fro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confirmed that they conducted extensive research focusing on emo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discussion and limitations on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re provided.

Keywords: Health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Research Trends, Data 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